



SARANG

답사기 02-03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 해외테마답사 _ 홍콩 마카오 일원 ②

전남 지역 뉴스 04-05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접수기간 연장하여 재공고
전남 화순군, 건축 인허가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전남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지난 2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북 전주시, G-Town 설계공모,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최종 당선
전북 남원시, 오는 22일 유현준 건축가를 초청해 '플레이남원 아카데미' 진행

광주 지역 뉴스 08-09

2025년, 제29회 광주광역시건축상 공모 접수
광주건축사회,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회원작품 모집공고
광주건축사회, 정영법 건축사 '제2회 광주예총 신인예술상' 수상

독자광장 10

기고문 _ 전남, RE100 시대를 여는 미래 산업수도
책 소개 _ 건축의 탄생
한 장의 사진 _ BLUE OCEAN DOME

설계공모 11

곡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디톡스테라피거점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홍보 12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7.188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 해외테마답사 _ 홍콩 마카오 일원 ②

김동우 건축사 / (주)지평 건축사사무소 (광주)

문화적 소비와 도시 경관이 만나는 상업 플랫폼

K11 Musea

K11 Musea는 홍콩 침사추이 빅토리아 도크사이드에 위치한 문화·예술·상업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2019년 8월 개장하였습니다. K11의 창립자인 애드리안 첵(Adrian Cheng)의 '문화 소비(Cultural-Retail)' 개념 아래,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문화적 경험의 플랫폼으로 기획되었으며, KPF(Forth Bagley)를 중심으로 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Ronald Lu & Partners, LAAB Architects 등 100여 명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외관은 바다와 도시를 시각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물결치는 파도를 연상시키는 유기적인 파사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실내로 들어서면 중심부에 위치한 구(球) 형태의 'Gold Ball' 구조물과 상부 천장을 통해 자연광과 공간의 수직적 흐름이 극적으로 연출되며, 방문자의 동선을 예술적 체험으로 유도합니다. 벽면 녹화(Green Wall)와 빗물 재활용 시스템, LEED 및 BEAM Plus 인증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되었으며, 도시 속 지속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타의 거리(Avenue of Stars)'는 원래 2004년 뉴월드 그룹이 조성한 해안가 산책로로, 홍콩 영화 산업을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K11 그룹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부와 함께 리노베이션이 진행되었고, 빅토리아 도크사이드 개발의 일부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리노베이션 후의 스타의 거리는 단순한 명소를 넘어, 시민이 바다를 접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기능하며, 역사·문화적 상징성과 도시의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K11 Musea와 스타의 거리는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범주를 넘어, 도시 경관과 예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화소비를 전제로한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특히 K11 Musea의 실내 공간은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서, 전체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적 전시장(cultural gallery)'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니멀리즘과 기술혁신, 브랜드의 정체성이 표현된 상업공간

Apple Store, Cotai Cent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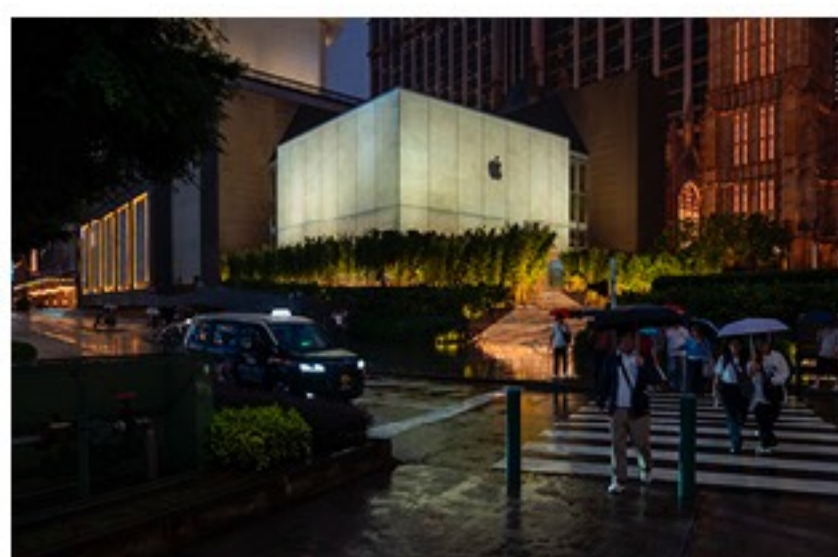
Apple Store Cotai Central은 2018년, Foster + Partners와 Apple 디자인팀(총괄 Jonathan Ive, Angela Ahrendts)의 협업으로 마카오 코타이 지역에 완공된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기술과 자연, 건축적 절제가 어우러진 마카오 전통의 '종이 등불' 같은 정제된 큐브로 구현되었으며, 인근 카지노 건축물들의 과잉된 상징성과 표상주의적 외관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K11 Musea에서 스타의거리로 이어지는 워터프론트 브릿지



K11 Musea 공간 디자인



캡션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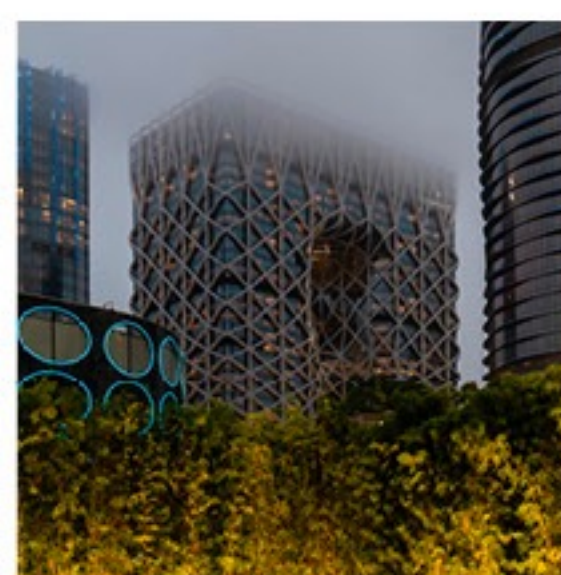
건물은 기둥이 보이지 않는 무주(無柱) 공간, 절제된 디테일, 통제된 치수 설계를 통해 Apple이 지향하는 미니멀리즘과 기술 혁신의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강화유리 접합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적 역발상을 실현하였고, 벽과 바닥의 마감선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공간의 밀도와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시각적 단순함 속에 담긴 고도의 기술적 정교함을 통해 공간 경험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단 세 개의 코너 기둥만이 건물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기둥조차 미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하여 공간과 반사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각적 연속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상부의 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과 실내에 조성된 대나무 숲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시시각각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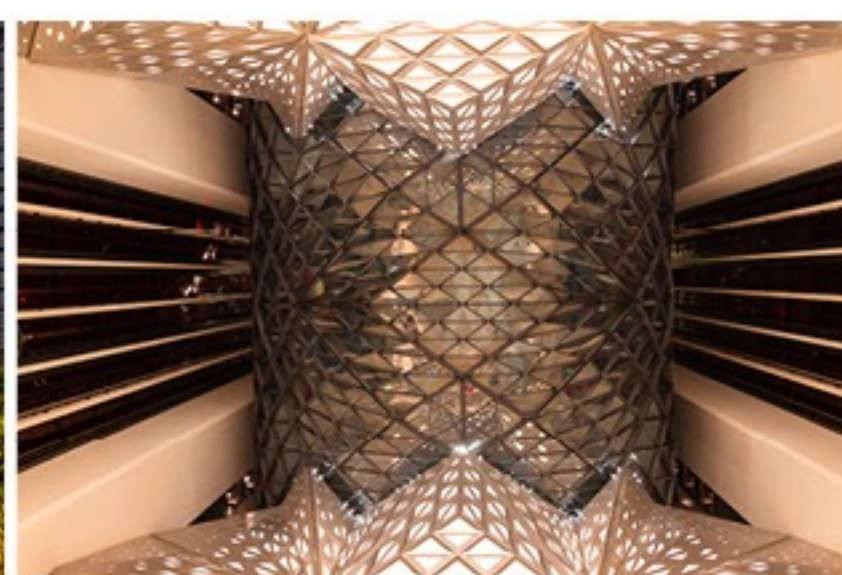
이처럼 Apple Cotai Central은 기술, 자연, 감성, 브랜드 철학이 건축적으로 조화롭게 융합된 공간입니다. 건축가는 '큐브가 등불처럼 빛나고, 내부는 대나무 숲을 품는다'는 개념 아래, 건축을 하나의 정서적 체험 장치로 전환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은 사진에 담기지 않는 정교한 디테일과 건축 철학이 공간 전체에 깃들어 있어 공간을 경험할수록 층위가 더해지는 인상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생전에 설계하고 사후에 완성된 건축물

모르페우스 호텔(Morpheus Hotel)



애플 스토어 코타이에서 바라본 모르페우스 호텔 전경



모르페우스 로비 상부 조형과 수직동선

마카오 'City of Dreams' 복합 리조트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모르페우스 호텔(Morpheus Hotel)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생전에 설계를 마친 후, 그녀의 타계 이후인 2018년 6월에 완공된 유작입니다.

모르페우스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외골격 구조(Exoskeleton)입니다. 전통적인 내부 기둥과 벽 중심의 구조 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건물 외피가 구조체가 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외피는 중국 전통 옥 조각에서 착안한 유기적인 격자 패턴으로 형성되어,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가 분리되지 않고 기능과 조형이 일체화된 건축 언어를 구현합니다. 이로 인해 내부 공간은 무주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었고, 다양한 수직·수평 동선이 유기적으로 교차하는 입체적 공간 시퀀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앙부에는 세 개의 보이드(Void)가 배치되어 있어 건축물 내부를 시각적으로 관



호텔 프론트 데스크 디자인

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도시 경관이 내부로 유입되고, 반대로 내부의 활동이 외부로 확장됩니다. 특히 상층부에 배치된 스카이브릿지(Skybridge)는 이러한 공간적 흐름을 시각화하며, 이용자에게 마치 공중을 산책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실내에 설치된 12기의 유리 엘리베이터는 수직 동선을 투명하게 드러내며, 이동 자체가 공간적 연출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곡선과 폴리곤 패턴의 조합은 건축물의 조형적 리듬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비정형의 낮선 공간은 사용자에게 몽환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제공합니다. 주변의 카지노 호텔들이 표상주의적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모르페우스 호텔은 고유한 조형성과 구조적 언어를 바탕으로 현대 건축의 실험정신을 대담하게 드러낸 건축물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외관이 아닌, 기술과 혁신적인 시도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조각품처럼 느껴지며 자하 하디드의 유작으로서 더없이 강렬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강한건축, 기호와 자극의 도시 마카오

마카오는 이제 더 이상 항구 도시나 포르투갈 식민지 유산의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02년, 스탠리 호가 독점하던 카지노 사업권이 해제되면서 미국과 해외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그와 함께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급속하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테마파크화 되었고, 상업성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도시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프랑스의 에펠탑, 베네치아의 운하와 산마르코 광장,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리지, 고대 로마의 신전 양식, 중국 궁궐식 장식이 뒤섞여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원형 문화나 고유한 의미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기호와 상징을 재료 삼아 도시 전체를 감각적 자본으로 치환한, 표상주의적 건축의 집합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건축될 수 있는 도시.” 마카오는 상업적 공간 소비 측면에서 상상력의 끝을 향해 치달고 있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공간은 기능보다 상징을, 맥락보다 자극을 우선하며, 도시의 정체성보다 개별 건물의 조형성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인상을 남깁니다. 쿠마 겐고는 저서 『악한 건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은 사라져야 한다. 환경에 스며들고, 지역의 공기와 빛과 냄새 속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건축이 소재와 환경, 지역성과 시간성에 순응하며 조용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목재, 흙, 식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재료를 통해, 건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공간과 환경에 스며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마카오의 건축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시 속에 등장합니다. 이곳의 건축은 각기 독립된 오브제로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경쟁하듯 외형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표상주의적 건축물의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건축은 과연 도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가라는 질문과 함께 표상주의적 건축물의 집합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궁금해집니다.

홍콩 마카오 일원 해외테마답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건축 답사는 건축물 자체의 미학적 가치뿐 아니라, 도시가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건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홍콩은 고밀도의 도시 조건과 한정된 개발 가능 토지 속에서도, 서구 문화지구(WKCD)와 같은 문화 기반 공공 개발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도시 내의



마카오 런더너호텔 전경

‘비워낸 공간’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열린 장소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M+ 현대미술관, JC Contemporary, 고궁박물관 등은 과거와 현재, 공공성과 예술성이 유기적으로 얹힌 복합 공간으로서, 도시재생의 문화적 전략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머레이 호텔(The Murray)은 1960년대 브루탈리즘 공공건축의 유산을 현대적 호텔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리노베이션 사례였습니다. 이는 기존 구조물을 존중하면서도, 도시 내 녹지 축과의 연결, 보행 네트워크 강화, 에너지 효율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설계였으며, 근대건축 유산이 현대적 기능과 감성 속에서 새롭게 생명력을 부여받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마카오는 도시 전체가 소비의 장이자 테마파크로서 기능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건축 상징을 모사한 강한 건축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도시 정체성보다는 자극과 표상의 힘이 앞서는 ‘기호의 도시’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르페우스 호텔, 애플스토어 코타이와 같은 현대 건축은 브랜드 철학, 기술적 정밀성, 조형적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상업성과 건축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어떤 건축은 사라지고, 어떤 건축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모든 층위 속에서 건축은 단지 공간을 짓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갱신하며, 미래의 상상력을 제안하는 언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처럼, 이번 여정은 도시와 건축이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이야기 속을 함께 걷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정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발전기금: 1만 원부터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6 / gi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광고 및 구독신청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단광고: 350,000원
- 하단1/2광고: 200,000원
- 구독료: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협 131-009-471898

영암달맞이공원 관리동

곽봉암 건축사 / 기찬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열무정로 18, 2층 / Tel. 061-473-8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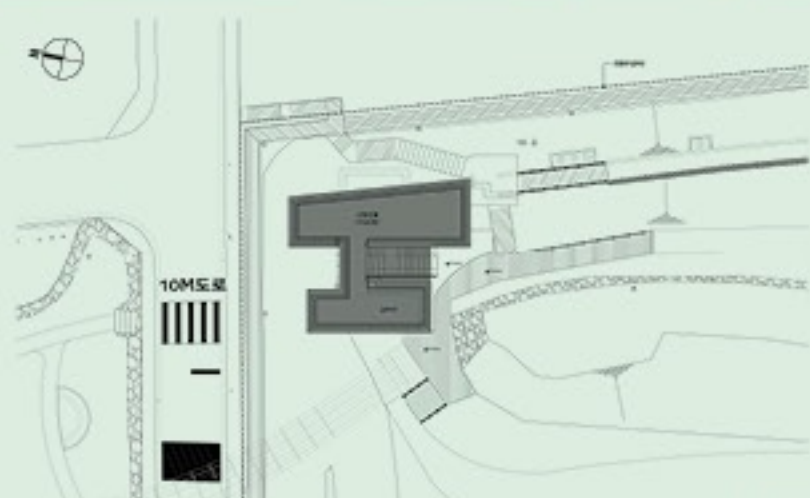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우리 195와 3필지 / 대지면적 : 11,808.20㎡ / 건축면적 : 171.06㎡ / 연면적 : 236.54㎡
건폐율 : 1.4532% / 용적율 : 2.0032%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sus 스마트판넬, THK24 로이복층유리

본 과업은 영암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내 편의시설 및 관리동 신축 용역으로, 설계는 과거 전란 시 읍성을 방어하던 목책의 형상을 모티브로 삼아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였다.

영암읍성은 지형을 따라 조성된 연속적인 구조였으나, 현재는 열무정과 토성 영역으로 단절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1.0m 길이의 경관 보도교를 설치하여 공간적 흐름을 복원하고, 건축물은 토성의 방향성과 연계되도록 배치되었으며, 목책의 결구 형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였다.

공간은 단절된 성곽을 이어주며, 역사와 자연을 연결하는 열린 공공장소로 계획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상징성을 함께 담으려고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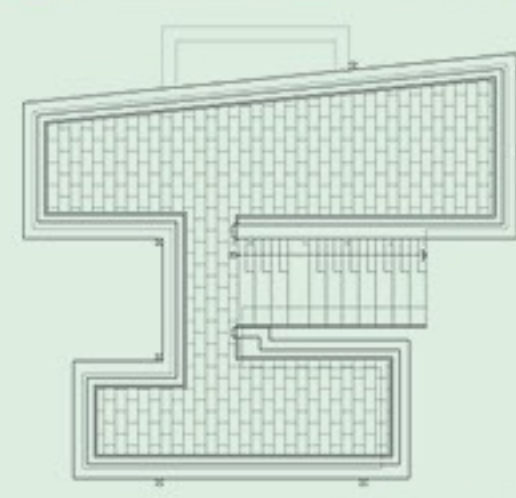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옥상층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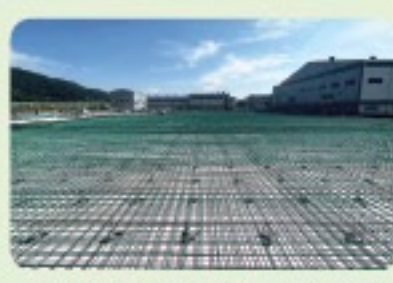
"조달청 우수/혁신 제품 지정" (국토부 핵심전략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 (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 (한국도로공사 데이터)

KECO 호남 총판점

광 주 권 061-371-1233
전 북 063-223-8800
서부 목포 010-3638-1882
동부 여수 010-2925-7777
제 주 도 010-2981-4444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연약지반 (주)파나시아 공장



통영 스타벅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접수기간 연장하여 재공고

도시품격 향상과 건축문화에 대한 높이고자 공모 기간 늘려...



(사진 = 전라남도청)

전라남도는 도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도시품격 향상 및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2025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선정계획'을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2022년 첫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 민간 건축물 발굴에 힘쓴 전남도는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모 대상을 확대,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공공부문 각 5개 내외 작품을 시상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건립 시기에 상관없이 전남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 부문은 전남도, 시군, 교육청 등이 시행하거나 조성한 공공건축물 중 준공된 지 5년 이내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건축주(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건축개발과 관계자는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전남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 건축 인허가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관내 건축사 및 건축 관계자들과 건축 인허가 제도에 협력 방안 논의



(사진 = 전남 화순군 제공)

전라남도 화순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건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건축 인허가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의 지연, 민원 처리 장기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과 민간 간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관련 협의 부서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 강화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 최소화 △절차 효율화 △건축사가 서류를 완비해 '세움터' 전자민원 시스템에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협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의 경우 건축사가 사전에 관련 부서와 별도로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이 같은 사전협의 절차는 행정의 병목현상을 줄이고, 전체 인허가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축사들이 현장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였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민중 인허가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행정과 건축 전문가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이주경 건축사(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사진 = 전남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건축설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 사업'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주경 건축사(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이길환 건축사(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가 공동 출품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전통 건축 형식의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고 중정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공간 구성과 청사 방문객, 보행자, 차량 동선을 분리해 안전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본청사 별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6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7,492㎡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전라남도건축사회, 2025년 상반기 실무교육 실시

지난 6월 18일 무안과 6월 25일 순천에서...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6월 18일과 25일 2025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전문·윤리)을 진행했다. 먼저 6월 18일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 6월 25일에는 전남 순천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3층에서 '건축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주제로 임병훈 (주)건설안전컨설팅 대표이사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라는 주제로 정재룡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과장, '건축사 전문직 윤리'라는 노희정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교육위원회 개최

2026년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 수립...



전남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에 의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달 26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6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재봉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했다.

백재봉 위원장은 "2026년도 실무교육은 건축사의 직무 전문성과 지역 건축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건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60명 (2025. 7. 8. 기준)

• 전입

- 박수희 건축사 / 수음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4길 7-7, 2층
- 박수희 건축사 / 수음 건축사사무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4길 7-7, 2층

• 변경(근무처)

- 나은명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차이 / 전남 나주시 시청길 21-7, 303

• 결혼

- 노경윤 건축사 /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5년 7월 5일(토)

• 부고

- 고병순 건축사 / 고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6월 2일(월)
- 남승우 건축사 / 승화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5년 6월 17일(화)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반석기초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서신119안전센터

정 옥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정건축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4, 4층 401호 / Tel. 063-228-0657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3-10번지 / 대지면적 : 593㎡ / 건축면적 : 270.19㎡ / 연면적 : 620.80㎡ / 규모 : 지상 4층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교벽돌치장쌓기

대지의 형상은 남북방향으로 오각형의 긴 형태로 건물 MASS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었으며 2면도로(20M, 25M 통과 도로)에 접해 있으며 전주천변로와 본 대지와는 약 3.3M의 레벨차이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층높이를 계획하고 또한 평면계획에서는 1층은 직원주차장으로 계획하고 2층은 차고영역(소방펌프차, 구급차)과 업무영역(사무실)을 서로 분리하여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고 상부에는 수직조닝을 고려하여 차고 부분에는 동적인 기능의 체력단련실 및 식당을 계획하고 사무실 부분에는 정적인 기능의 대기실을 계획하였으며 4층에는 교육실, 회의실, 휴게실의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다목적실을 계획하였다.

입면 재료의 마감은 압출성형시멘트패널(노출형)과 백고벽돌, 청고벽돌을 사용하여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최대한 반영하고 청고벽돌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의 대비를 이용하여 차고 부분과 2층, 3층의 돌출 입면부분을 강조하였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지난 2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해 활성화 방안 공유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2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각 단체 간 현안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건설산업 내 노동분야 공통현안과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소재철 회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SOC예산 감소, 투자심리 위축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각 단체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스스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지역 건설산업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등 도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G-Town 설계공모,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최종 당선

AI 기반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시설로 미래지향적 공간 제시...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G-Town' 조성을 위해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이길환 건축사)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G-Town'은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인

근에 들어설 AI 기반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시설로 총 사업비 400억여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은 1만 3,420㎡(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당선된 설계안은 MICE 단지 내 다양한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대학생·청년·기업가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효과적으로 배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래 지향적 공간 구성과 함께 'LIMITLESS CUBE'라는 콘셉트를 도입해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하반기에 착공,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 오는 22일 유현준 건축가를 초청해 '플레이남원 아카데미' 진행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현준 건축가를 초청해 플레이남원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도시와 공간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의 삶과 생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흥미롭게 풀어갈 예정이다.

유현준 건축가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및 하버드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이자 유현준엔파트너스 대표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와 공간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레이남원 아카데미는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매월 자세한 강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당일 강연은 관내 경로당 IPTV로도 실시간 송출된다.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지난 9일 '제25차 포럼 개최'

전주시 도시건축 방향과 건축사의 역할이라는 주제...



(사진 = 전주지역건축사회 제공)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달 9일 전주시도시혁신센터에서 전주시 도시건축의 방향과 건축사의 공공적 역할을 논의하는 '2025년 제25차 전주지역 건축사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전주시 도시건축 방향과 건축사의 역할'을 주제로 질의응답과 의견 개진을 통해 시민

과 전문가가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 전주시 건설안전국 김성수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조창호 건축사의 기조발제로 포럼을 시작했다.

이날 포럼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문가인 건축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시됐다. 또한 행정기간과 건축사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전주의 도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주지역건축사회 박광성 회장은 "이번 포럼은 도시건축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두지 않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열린 장"이라며 "건축사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설계하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보전과 개발의 균형이 절실하다"며 "이번 포럼이 전주시 도시정책의 진정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북 부안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발간'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건축공사비, 설계용역비, 설계공모 등 가이드라인 제공...

부안군이 공공건축물 건립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건축공사비, 설계용역비, 설계공모 등 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에서부터 사업계획, 건축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까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복잡한 공공건축물 건립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을 로드맵 형식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공공건축물 건립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 이동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누구든지 공공건축에 관련된 절차를 쉽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미순 재무과장은 "건축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직원 누구나 건축 업무 관련 절차를 쉽게 파악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군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건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매뉴얼을 관·과·소에 배부했으며 건축공사 관련 업체 및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각 읍·면 배부 및 군 홈페이지 게재할 예정이다.

임대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보원), 고창군에 고향 사랑 기부금 기탁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 예정...



(사진 = 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사무소 보원 임대현 건축사는 고창군에 지난 8일 고향 사랑 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하였다.

특히, 임대현 대표는 지난 2024년에 이어 연속 2년 동안 고창군에 고향 사랑 기부금 300만원씩 기탁하는 등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 2년 연속 고향 사랑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주신 기부금이 소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내 마음 속 고향 고창에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새만금개발청과 간담회 개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



(사진 =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제공)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5일 새만금개발청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소재철 회장은 1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민간 투자유치 성과를 통해 전북경제와 지역건설산업에 크게 기여한 김경

안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 회장은 "김경안 청장께서 그간 새만금 투자유치 확대,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기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내 최대 개발사업인 새만금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도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9명 (2025. 7. 8. 기준)

• 변경(소재지)

- 양은희 건축사 / 시작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남북로 254, 2층

• 결혼

- 송경규 건축사 /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7월 5일(토)

• 부고

- 최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일 / 모친상 - 2025년 6월 13일(금)

- 문창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디엠 / 빙부상 - 2025년 6월 25일(수)

- 주규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온 / 빙부상 - 2025년 6월 25일(수)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도동길 17-14 / 대지면적 : 528.0㎡ / 건축면적 : 1층 142㎡, 2층 80㎡ / 연면적 : 222㎡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전원주택 / 구조 : 조적조

카사벨라 갤러리

(2025 장성군 예쁜정원 콘테스트 최우수상)

정원석 건축사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치평로 124, 307호
Tel. 062-372-0773

전남 장성군 내 50호 정도 되는 동네 옆에 조그마한 야산을 2000년도에 매입하여 기존 자연조건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의 오솔길 정도만 다듬어서 부지 내에는 인도만 조성하고 배수 처리만 완성하고 웅벽은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자연석 1단 정도만.. 전통 한국 정원의 기본을 토대로 매일 스케치하며 직접 시공하며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조성 중에 있다.

목표는 서양화를 취미로 그려놓은 소품 100여점을 전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목각 조각품과 아내의 취미로 빚어놓은 도자기 소품 30여점을 야외 정원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주택 내부도 생활 속에 자연 그대로를 보여 주면서 그림 작품을 벽에 걸어 순수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휴식공간을 OPEN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동네 앞에 조성 중인 아열대작물실증센터(2026년 완공)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약 3,000여 교육생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을 해본다.



2025년, 제29회 광주광역시건축상 공모 접수

최근 5년 이내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사회공공, 주거, 비주거(각 부문별 리모델링 포함) 건축물 대상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가 주관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길종원)가 주최하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후원하는 2025년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모집이 공고됐다.

해당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7월 1일 공고를 통해 올해 관내 우수한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광주시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모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사회공공 부문, 주거 부문, 비주거 부문 건축물 (각 부문별 리모델링 포함)에 한한다.

작품접수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 A0 사이즈 작품판넬과 함께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무국(광주 북구 무등로 255, 4층)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작품접수 마감 후에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건축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주간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사회공공 부문, 주거 부문, 비주거 부문에 각각 최우수작 1작, 우수작 1작 등 총 6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외부 디자인과 함께 시공 우수성과 내부공간 유용성 등을 주요점을 두고 건축상을 심사할 계획이며 입상한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건축주에게는 동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리는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광주지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광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권위 있는 건축상인 만큼 우수한 건축작품들이 많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지난 1989년부터 건축사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축저변 확대 등 광주지역에서 우수 건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건축사, 시공자,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63개 건축작품을 시상하여 광주시 건축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회원작품 모집공고

오는 8월 22일까지 작품접수, 2020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 대상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오는 8월 22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되는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인 광주건축사회원 작품전에 출품할 작품을 모집 공고했다.

출품작품은 2020년 1월 이후 준공건축물로 출품자격은 광주건축사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작품규격은 JPEG 또는 PSD파일(A1사이즈 594mm X 841mm)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접수는 출품신청서와 함께 gjkira@empas.com을 통해 무료로 접수가능하며 제작된 작품은 문화제 종료 후 찾아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매년 지역 건축인과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건축 문화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는 행사이다.

광주건축사회, 정영법 건축사 ‘제2회 광주예총 신인예술상’ 수상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사진 = 광주대 제공)

정영법 건축사(로운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활발한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5일 ‘제2회 광주예총 신인예술상’을 수상했다.

광주예총 신인예술상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시연합회(이하 광주예총)가 라인문화재단의 메세나 기금을 기반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는 유망 신인예술가에게 수여된다.

정영법 건축사는 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 다수의 설계 작업을 수행하며 지역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왔다. 또한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사무국장,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강사, 광주광역시 공공건축가 및 건축민원상담건축사 등으로 활동하며 시민과 공공을 위한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광주건축사회, 6월 실무교육 성료

전문·윤리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달 24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6월 건축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첫 번째 교육은 박병열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가 강사로 나서, ‘그린리모델링의 프로세스와 실무적용’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리모델링과 탄소중립건축물 조성 필요성에 대해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건축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두 번째 교육은 박구용 교수(전남대학교 철학과)의 ‘건축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건축의 철학적, 미학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통해 건축가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개최

7월 2일 전남대 공과대학 코스모스홀에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2025 졸업작품전(건축도시 설계전공, 건축공학전공)이 지난 2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코스모스홀에서 개막식이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광주건축단체연합회 김종원 회장,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광주

전남건축가회 김기준 회장,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조창근 회장을 비롯한 건축학부 교수와 학생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건축 졸업작품전을 통해 훌륭한 건축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은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http://soacnugallery.com>)를 통해 12월 31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광주 서구청, “건축물해체공사 실무처리 매뉴얼” 전달식 가져...

해체공사와 관련된 민원서류 검토, 현장점검, 사고사례 등 포함...



광주 서구청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과는 지난 8일 시민의 안전과 공무원의 해체공사 관련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광주건축사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매뉴얼은 해체공사와 관련된 민원서류 검토, 현장점검, 사고사례 등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해체 관련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제작하였다.

서구청 김선희 시설전문관은 “이번 매뉴얼은 비록 공무원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님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해체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해체공사 실무처리 매뉴얼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69명 (2025. 7. 8. 기준)

•입회

- 정광혁 건축사 / 이티씨 건축사사무소(유) /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3로 38, 2층 202호
- 하주아 건축사 / 하주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버들로 9-1, 4층

•전입

- 김윤하 건축사 / (주)지평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제봉로138번길 9

•퇴회

- 주효승 건축사 / 상아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총장로안길 5-3
- 임형우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네스트 /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0-1, 205동 206호

•전출

- 오령훈 건축사 / 히람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전출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기고문 _ 이경일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남, RE100 시대를 여는 미래 산업수도

전 세계적으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이 글로벌 캠페인은 이제 산업 입지와 도시 계획, 건축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은 국내 최대의 재생에너지 잠재지로, 솔라시도를 비롯한 연안 일대는 2030년까지 무려 2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입니다.

이제는 건축도 바뀌어야 합니다. 건축물은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순환시키는 거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RE100 건축, 스마트 인프라가 적용된 산업단지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남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먼저 준비된 지역입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대규모 배후지, 입지 조건, 규제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는 전남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RE100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유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과 비용경쟁력을 동시에 제공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전남은 더 이상 유치를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미래이며,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입니다. 이제는 정책과 기업이 이 가능성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의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대한민국의 산업지도와 에너지 지형을 바꾸는 미래산업수도의 핵심 시설이 될 것입니다.

전남은 RE100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는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단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경일 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 현.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 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전라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현. (유)원건축사사무소 대표
- 전. 전라남도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위원
- 전.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전. 목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BLUE OCEAN DOME
(by Shigeru 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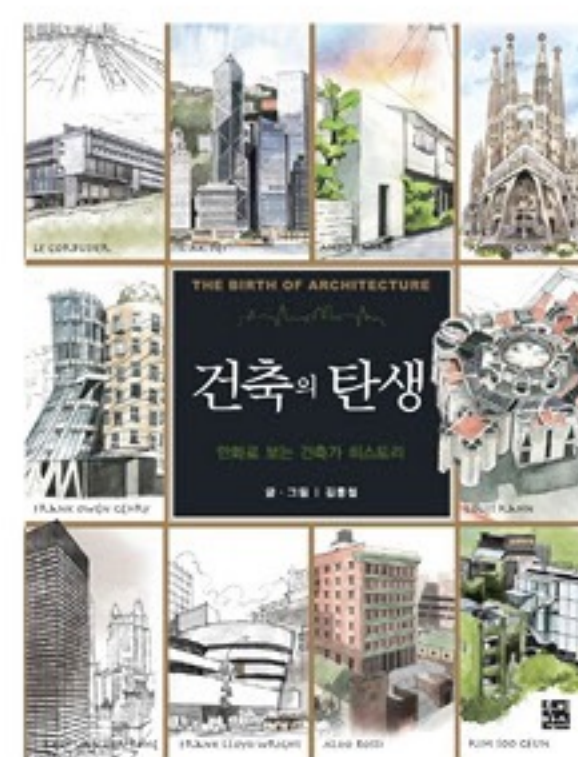
일본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 2025년 7월 3일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건축의 탄생

김홍철 / 루비박스 / 2019. 4. 15.

우리는 매일같이 건축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생각이 깃들어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한 사람이다. <건축의 탄생>은 그런 우리에게 “건축은 이야기가 있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유쾌하고도 진지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만화라는 형식을 택함으로써 복잡한 건축 이야기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근하게 한다.



이 책은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세계 현대 건축의 흐름을 이끌어온 15명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의 삶과 작품을 따라간다. 안토니 가우디, 르 코르뷔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익숙한 이름에서부터 렘 콜하스, 자하 하디드처럼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며 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동시대 건축가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들의 건축은 그저 멋있는 공간을 짓는 것을 넘어, 시대의 사상과 철학, 기술의 진보, 예술적 실험을 담고 있다.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축가는 스페인의 안토니 가우디였다. 그는 건축을 단순한 건축이 아닌 자연과 신화, 종교가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풀어낸 인물이었다. 구엘 별장 앞의 용 조형물이 황금사과를 지키는 그리스 신화의 용에서 따왔다는 설명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조형물 하나에도 얼마나 깊은 상상력과 상징이 담겨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 김수근 건축가의 세운상가와 남산자유센터,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했던 건축물들에도 건축가의 사연과 시대의 흐름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도 무척 흥미로웠다. 또한 단순히 건축가 개인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의도와 철학으로 건축을 했는지를 역사적 흐름 안에서 보여주기에 때문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 것 같다. 이 책은 무엇보다 만화라는 형식이 주는 강점이 컸다.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구조나 콘셉트가 수채화풍 그림과 일러스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설명되니 훨씬 쉽고 재밌게 다가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르 코르뷔지에의 필로티(기둥 위에 집을 띄우는 구조)나 루이스 칸의 빛을 활용한 공간 연출 등이 단순한 설명이 아닌 구체적인 그림과 함께 제공되니 건축 초보자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도 알차다. 각 건축가의 주요 작품, 연표, 시대적 배경, 일화, 건축 철학 등이 정리되어 있어서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정리되고 기억에 남는다. 프랭크 게리의 페이스북 사옥, 렘 콜하스의 삼성미술관 리움,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처럼 현재도 활발히 사용 중인 건축물들을 통해 건축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생생히 체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교양서 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깊이도 갖춘 매우 균형 잡힌 책이다. 건축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나 예술, 디자인 전공자, 혹은 도시 공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싶은 일반 독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읽고 나면 거리를 거닐 때 보이던 건물들이 그저 벽돌과 유리의 조합이 아니라, 누군가의 철학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된다. 건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공간이며, 사람의 삶과 닮아 있다는 걸 이 책은 말하고 있다. '건축의 탄생'은 단순한 건축 만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는 일종의 '시선 교정서'이기도 한 책이다.

곡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디톡스테라피거점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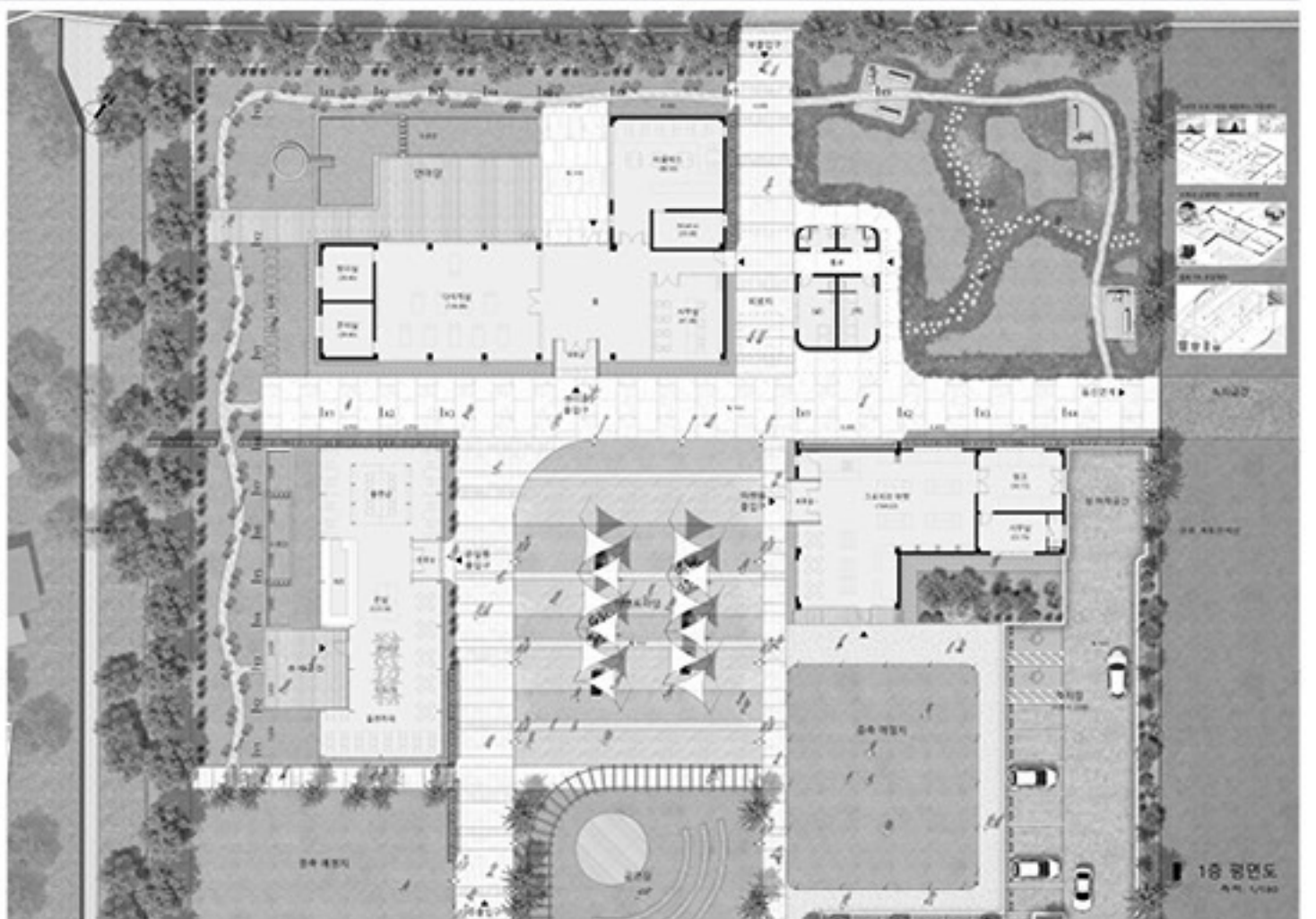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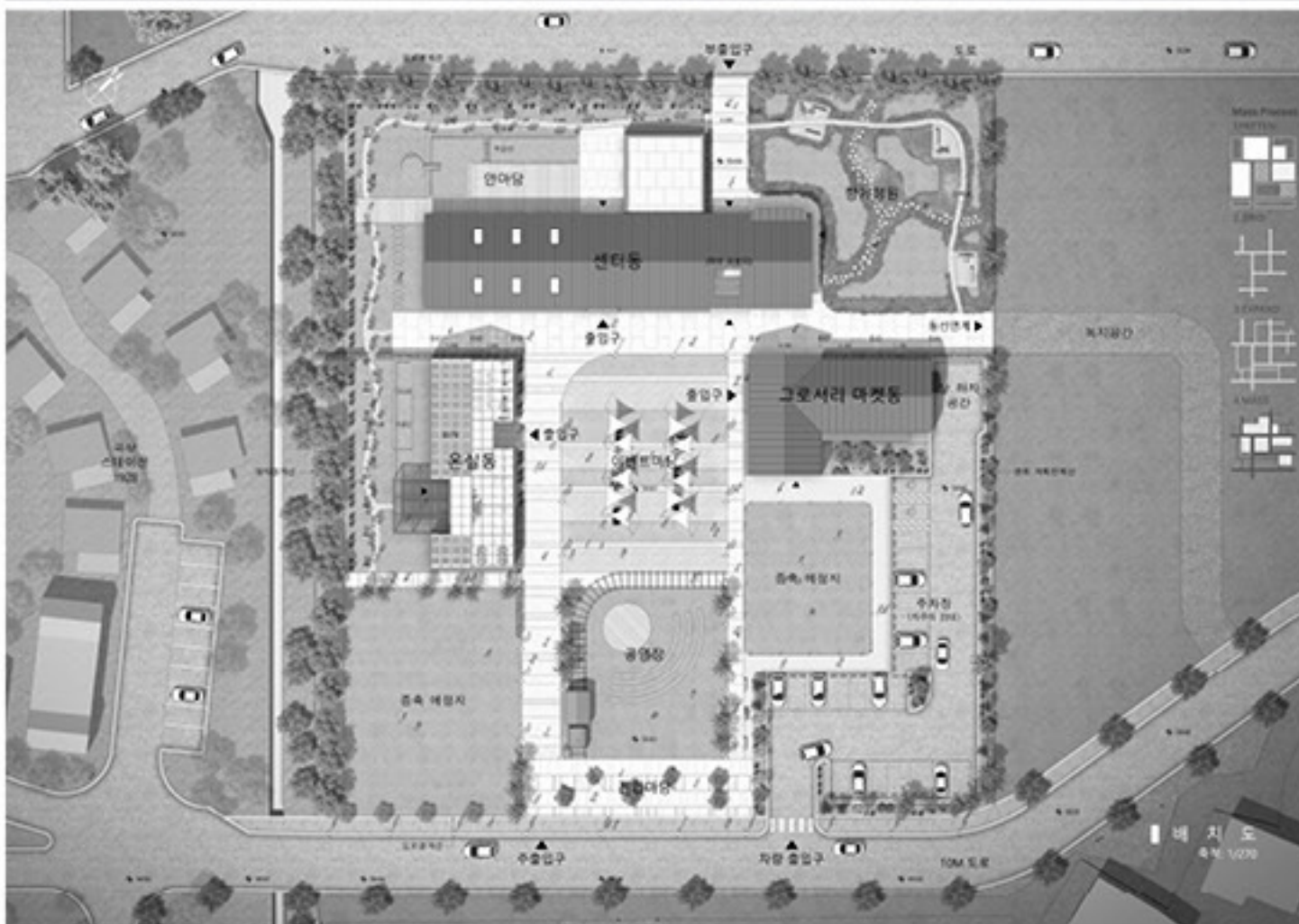
곡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하여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곡성군 디톡스테라피거점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함.

심사위원 : 구 협(전남과학대학교), 강철욱(건축사사무소 예코), 박용신(전주비전대학교), 원현성(원 건축사사무소), 정광용(순천제일대학교)

- 대지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946-2번지 외 7필지
- 연 면 적 : 925.07㎡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 규 모 : 3동/지상 1층
- 대지면적 : 12,738㎡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온실)
- 건축면적 : 956.20㎡
- 외부마감 : 점토벽돌치장쌓기, AL 패널, 금속강판 외

당선작

김병수 건축사 / 강천 건축사사무소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THE 21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INCHEON



2025.
9. 8. - 9. 12.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관

 17개 시도건축사회
17 KIPA CHAPTERS

후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rchitectural Policy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Urban and Planning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FIKA 한국국제건축협회
Kore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chitects

 건축사공제조합
Korea Construction Industry Association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Construction Associations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